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오 10,18,22)

서울 대교구 종로성당 성 김대건 신부상

[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제2독서] 로마서 5,1-5

[화답송] 시편 31(30),3ㄷ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 6ㄱ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복음] 마태오 10,17-22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주소서.
오로지 주님만 만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성가 안내]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주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입당성가: [287]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 봉헌성가: [216]십자가에 제헌되신 [212]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0]하느님의 어린 양 [174]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283]순교자 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김대건 사제에 대한 기념과 함께 신부님께서 최후까지 신앙을 증거한 그 모범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부님은 1821년에 충청도 면천군 범서면 솔피에서 태어나시고 1846년 9월 16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흐트러짐 없이 순교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였고 참수를 받으시는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신부님께서 1845년 사제서품을 받고 그 이듬해인 1846년 9월 16일에 순교하셨으니 사제로 사신 것은 불과 일 년하고도 몇 개월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사제서품 몇 개월 후인 1845년 8월 31일에 중국 상하이 항에서 라파엘 호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했지만 서해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포류합니다. 극적으로 9월 28일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당도하게 되었으니 거의 한 달을 바다에서 포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수리하고 10월 1일 제주를 떠나 12일 후에 금강하류 나바위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목숨을 건 포류 기간 동안 긴 시간 바다에서 겪었을 큰 고초와 용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해박해로 인한 교회지도자들의 순교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신부님은 꾸준히 사목활동을 하십니다. 그 이듬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페레올 주교님을 모실 비밀 항로가 적힌 지도를 중국으로 가는 어선에 넘겨주려다가 발각이 되어 잡히십니다. 신부님은 해주 감영으로 이송되었다가 그해 6월 21일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됩니다. 그후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문초를 받은 뒤,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튿날인 16일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마태 10,19)하고 말씀하신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갔을 때 그 문초와 순교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며, 또 어떻게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많은 순교 성인성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의 진실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비록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처럼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지 못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유혹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실 때까지 교우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신앙을 고백한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 사제와 교우가 서로 일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Do not worry about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Today is the Feast of Father Kim Tae-gon, who was the first Catholic priest in Korea and a great example of our faith as a canonized martyr. Father Kim was born in a small village called Solmoe in Choongchung Province in 1821 and was martyred at Saenamteo near Han River on September 16, 1846.

Until the day of his death, Father Kim continuously encouraged the Catholic faithful by sending letters to them. He said just before his death, “This is my last hour of life, listen to me attentively: if I have held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it has been for my religion and for my God. It is for Him that I die. My immortal life is on the point of beginning. Become Christians if you wish to be happy after death, because God has eternal chastisements in store for those who have refused to know Him.”

Father Kim was ordained in 1845 and was martyred in 1846. After he had been ordained in Shanghai, Father Kim set out trip to Korea. However, the ship wrecked and he had to drift in the water for almost a month. Finally, he reached Jeju Island, fixed the ship, and arrived in Choongchung Province. At the time, the persecution was very severe against Korean Catholics. Father Kim was caught by the government in 1846 and went through severe tortures and punishments. He was sentenced to death and was martyred on September 16th, 1846.

Jesus told his disciples, “When they hand you over, do not worry about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You will be given at that moment what you are to say.” This is a big comfort and relief for us when we face hardships because of our faith. What could we say when we got caught and how could we even die for our faith without this statement as we all have human weakness?

Pondering over the lives of Father Kim and other Korean martyrs, we come to understand and believe our Lord's words. Even if we would not die for our faith, we must pray to overcome all our daily difficulties and temptations, which is our martyrdom these days. We must follow Father Kim's example and ask Lord's help so that we could live as the light and the salt in this world.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알링턴 교구 주최 다문화 미사, 축제

알링턴 교구 주최 제 6차 다문화 미사와 축제가 지난 6월 25일(토) 오후에 알링턴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모어 주교좌 성당에서 열렸다. 교구의 유일한 한인 성당인 성 정바로 성당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우 50여 명이 참석하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카메룬, 인도, 라틴 아메리카, 가나 등에서 온 교구의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각 민족의 고유 음식을 나누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교회 모습을 체험했다.

미사 중에 하느님께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각 문화권의 대표자가 고유 언어로 선창하면 모든 교우들이 'Kyrie Eleison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으로 화답하여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한마음이 되어 청하였다. 본당에서는 강지우(소피아) 자매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한국어로 기도했다.

미사 후 이어진 친교 시간에서 본당 성모회(회장 장미경 에디터) 회원들이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 김치를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인기 메뉴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매들의 미소와 친절에 많은 참석자들이 기뻐하며 한국 음식을 즐겼다. 이에 더해 가장 멋진 어우러짐은 본당에서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이었다. 김춘실(마리아)의 북, 팽과리에 김춘애(마리아), 장구에 김우건(크리스토퍼), 그리고 징에 김우현(다윗)으로 구성된 가족 사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은 다른 문화권의 교우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한 감동과 신선함을 선사했다. 참석자들은 공연 내내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고, 마지막 장단이 멈추었을 때는 약속이나 한 듯 우리와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또한 한복을 곱게 입은 레지오 마리아, 파티마 세계사도직, 꾸르실료 등의 단체에서 참여한 자매들과 우리 아이들은 다른 문화권의 교우들로부터 아름답다는 칭찬을 들으며 문화 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행사 말미에 그들과 서로 어울려 함께 사진을 찍으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

통역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다양한 문화권의 교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준 이번 행사는 기쁘고 아름다운 기억을 모두에 마음 속에 심어주고 다음 해를 기약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③

하느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은 매우 중요하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시작 기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과 성체로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께
찬미와 흠숭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당신에게서만 기대하오니
예수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유익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2 기도 지향

(내가 바라는 기도의 지향을 말씀드립니다.)

3 성령께 드리는 기도

성령님,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답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을 치유해 주소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

4 말씀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머문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갈라 4,4-7)

5 묵상

성령의 또 다른 은혜인 ‘공경’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경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또한 우리와 하느님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 주는데, 이는 곧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는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실현해야 하는 관계’로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느님과
우리의 친교,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친교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이유이며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6 새김 (5-10 분 정도 침묵 중에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되새긴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7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따님이신 성모님, 당신께서 자녀다운
신뢰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살아가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구해 주소서.

8 마침기도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무시며
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 말씀에서 길어 올린 풍요로운 은총과 참된 위로는
제 삶의 희망이 됩니다.
바라는 모든 이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 제가 드린 기도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의 선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성바오로딸 수도회 엮음)를
하상주보에 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체조배를 하다보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기도 안내 중)

Trip to King's Dominion

With the beautiful weather, St. Paul Chung Altar Servers, Student Liturgy, and Student Choir went to Kings Dominion on June 24th as the end of year 'thank you' gift from the church. Students rode all the rides at Kings Dominion. They had fun and great time with one another. Fr. Seong also joined the trip and enjoyed roller coasters. By the end of the day, some students went to the water park and relaxed. This trip brought the students closer with one another and got them refreshed for all the hard work they have done the past year.



Saint Story St. Andrew Kim Tae-gon

Feast day: July 5th

Saint Kim Tae-gon Andrea, generally referred to as Saint Andrew Kim Tae-gon in English, was the first Korean-born Catholic priest and is the patron saint of Korea. In the late 18th century, Roman Catholicism began to take root slowly in Korea and was introduced by laypeople. In 1836 Korea saw its first consecrated missionaries (membe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s Society) arrive, only to find out that the people there were already practicing Korean Catholics.

Born of *yangban* (nobleman), Kim's parents were converts and his father was subsequently martyred for practicing Christianity, a prohibited activity in heavily Confucian Korea. After being baptized at age 15, Kim studied at a seminary in the Portuguese colony of Macau. He also spent time in study at Lolomboy, Bocaue, Bulacan, Philippines, where today he is also venerated. He was ordained a priest in Shanghai after nine years, 1844 by the French bishop Jean-Joseph-Jean-Baptiste Ferréol. He then returned to Korea to preach and evangelize. During the Choseon Dynasty, Christianity was suppressed and many Christians were persecuted and executed. Catholics had to covertly practice their faith. Kim was one of several thousand Christians who were executed during this time. In 1846, at the age of 25, he was tortured and beheaded near Seoul on the Han River. His last words were:

"This is my last hour of life, listen to me attentively: if I have held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it has been for my religion and for my God. It is for Him that I die. My immortal life is on the point of beginning. Become Christians if you wish to be happy after death, because God has eternal chastisements in store for those who have refused to know Him."



Prayer on the Memorial of Saints Andrew Kim Tae-gon, Paul Chong Ha-sang, and Companions. (Korean Martyrs)

O God,
 who have been pleased to increase
 your adopted children
 in all the world and who made
 the blood of the Martyrs
 Saint Andrew Kim Tae-gon and
 his companions
 a most fruitful seed of Christians,
 grant that we may be defended
 by their help and profit always
 from their example.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Amen.

Happy Feast day
 Fr. 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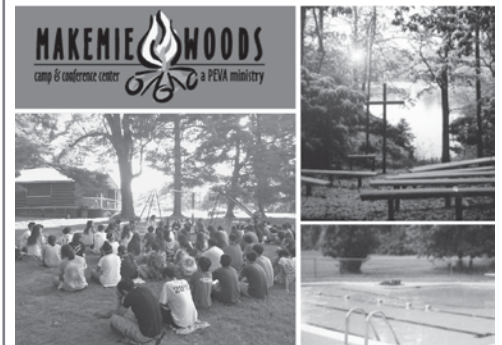


Celebrating with you
 on this blessed day.
 With love, gratitude and
 prayers are all yours.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CYO SUMMER CAMP

- **WHEN** : August 4 (Thur) at 1PM ~ August 7 (Sun) at 3PM
- **WHO** : Rising 9th – Graduated 12th grade students
- **WHERE** : Makemie Woods Campsite (Richmond, VA)
- **Regular Registration** : July 17, 2016
- **Registration Fee**:
 - Regular Registration: \$110
 - 2 or more children per family: \$80 per student
 - Late Registration: July 24, 2016 (\$125)



ANNOUNCEMENT

CCD Summer Camp Registration

- **WHO** :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WHEN** : Aug.12 (Fri) - Aug.14 (Sun)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FEE** : \$100/per participant
- **Registration** :
 Sundays (July 10, July 17 & July 24)
 9:30am - 11:30am at Cafeteria
Limited spaces. First come first served.

요한회 야유회 **신앙 안에서 우정 나뉜다**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가 지난 26일(일) 불런파크에서 정기 야유회를 갖고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약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야유회는 주님의 기도로 먼저 감사함을 봉헌한 뒤 족구, 발야구, 빙고 게임, 피칭샷 등의 게임과 야외 삼겹살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홍민 베드로 회원이 마련한 한방 삼계탕은 올 여름 더위를 한방에 날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인기를 끌었다. 자매님들과 함께 한 발야구 게임 맨 자매님들의 파워 샷에 형제 회원들이 당황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회원들은 이날 신앙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여름 하상한국학교 입학식



여름 하상 한국학교 입학식이 지난 6월 27일(월) 하상 체육관에서 열렸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250여 명의 학생과 50여 명의 교사, 자원 봉사자들과 학부모가 참석한 입학식에서 성원경 보좌 신부는 시작 기도와 함께 하상 한국학교의 교훈인 ‘착하고 정직하라, 사랑 가득히’ 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격려와 환영 인사를 전했다.

여름 학기 수업 시간은 주중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10여 개의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여름학기에는 K-Pop댄스와 요가 클래스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진행된다. 여름학기 일정은 8월 5일까지다.

로고스 청년회

페루 선교단을 위한 목주팔찌 기부 이벤트



페루 뿌갈파 선교단을 위해 로고스회 청년들이 2주 동안 목주팔찌를 만들었다. 로고스회 선교부는 목주팔찌 제작에 경험이 많은 서동준(마태오) 형제의 도움을 받아 ‘목주팔찌 기부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회원들은 참가비를 내고 목주팔찌를 만들어 하나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모두 페루 선교단에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청년들은 목주팔찌를 받고 기뻐하며 기도할 이들을 생각하며 여러가지 색과 모양의 비즈로 목주팔찌를 만드는 동안 ‘기부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목주와 목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정성껏 만든 목주팔찌로 많은 이들이 목주기도를 바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마음으로나마 페루 선교단과 함께 한 이 이벤트에는 2주간 총 20여 명이 함께 했다.

꾸르실료 울드레야 6월 정기 모임



꾸르실료 울드레야 6월 정기 모임이 지난 6월 24일(금) 친교실에서 있었다. 광노덕 도미니코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 기도, 성경 봉독, 복음 묵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새로 꾸르실리스따가 된 3명의 형제들은 ‘꾸르실료 주말’ 이후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 각자의 체험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공지사향으로 추계 야외 울드레야 준비와 꾸르실료에서 담당하는 평일 미사 때의 독서 봉사자 교육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1 구역임원 교육

- 7월 봉사자 교육 모임은 없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 일시: 7월 3일(일) 오후1시

3 성모임원회의

- 일시: 7월 3일(일) (13:00, B-1,2)

4 제 75차 새 예비자 모집 공고

- 기간: 7월 3일까지
- 장소: 성당 입구, 친교실 선교 테이블
- 문의: 유제운 (703) 628-9314

5 제5기 페루 선교 참가자 파견식

- 일시: 7월 3일(일) 10시 미사 중

6 미사해설자 및 제 1,2 독서자 모임

- 일시: 7월 10일(일) 오후 1:30 성당
- 대상: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주일미사, 토요미사, 평일미사)
- 문의: 박상태 요한 (703) 302-0026

7 교육부 건강 세미나

- 주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지역 사회 자원 이용"
- 일시: 7월 10일(일) 오전 11:30분 (친교실 A-1,2)
-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관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8 공동체 기도회 모임 소식

- 소공동체 모임이 7월에는 없습니다.
- 8월 두번째 토요일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세원 바오로(703)489-3938

9 K of C 신입 Grand Knight 선출

- K of C 의 2016년-2017년 회기: 김버나드 형제가 단장에 선출
- 역대 단장님들은 K of C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버나드 (703) 342-219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3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구역임원교육 없음, 페루 선교 참가자 파견식(10시 미사 중), 청소년사도회(13:00, B-3,4), 성모회임원회(13:00, B-1), CLC 피정(18:00, 친교실)
4일(월)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사무실 휴무, 하상학교 휴교
5일(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6일(수)	연중 제14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7일(목)	연중 제14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8일(금)	연중 제14주간 금요일	병자 영성체, 회장단 회의(20:00), 제5기 페루 단기 선교(16일까지),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9일(토)	연중 제14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 없음
10일(일)	연중 제15주일	단체장 회의 (11:30, B-3,4), 청소년 사도회(13:0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4), 건강세미나(11:30, A-1,2)

10 CCD 여름 캠프 신청

- CCD 여름 캠프 신청을 미사(8시,10시,11:40) 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캠프 일정: 8월 12일(금)- 8월 14(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서동민 (571) 435-6476

11 셔틀버스 추가 운행 안내

- 셔틀버스를 주일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추가로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스케줄

- ▶ NGIS (Northrop Grumman Info)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 오전 7:20 에서 10분 간격으로 7:50 까지
 - 오전 9:20 에서 10분 간격으로 9:50 까지
- ▶ 성당에서 NGIS 주차장으로
 - 오전 11:15 에서 10분 간격으로 11:45 까지
- ▶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단체 모임과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아침 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5기 페루 선교(7월 8일 - 7월 16일)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참가자 명단> ***

성원경 신부님, 김병국, 권애드류, 이성녀, 이지나, 이유진, 김도현, 김도성, 허지혜, 송유일, 김윤희, 에드워드 니콜라스, 박주만, 최은정, 김순자, 이영옥, 윤크리스틴, 박레지나, 박엘리스, 박저스틴, 이혁찬, 임서희, 서희경, 김주호, 권현정, 이신영, 최제시카, 안광준, 유제운, 김남철, 안미리, 김지인, 심안젤라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 (7월 5일)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7월 7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살려낸 가톨릭 의료인들의 이야기.
- **아시아에 희망을 심다:** 한국 외방선교회 시리즈/ 동남 아시아 자원활동

7월 8일 (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6월 26일 (연중 제13주일)

주일헌금	\$ 7,022.00
교무금	\$ 7,535.00
교무금(신용카드)	\$ 2,77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헌금	\$ 3,038.00
합계	\$ 20,46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7월 3일	센터빌 2
7월 10일	센터빌 3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성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도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홍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이용주 씨 너: **이지영 그레이스**

◆ Jose Bonilla 씨 자: **Nelson Bonilla**

- 일시: 2016년 7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 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